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9월 고용 2.9만 명에 그쳐… 고용시장 둔화
- WSJ: 연준 부의장, "10월 금리 인상 서두를 필요 없어"

[미국 금융]
- Bloomberg: 미 채권 트레이더들,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 낮춰
- CNBC: 미 9월 고용 쇼크에 국채 금리 일제히 하락
- Bloomberg: 고용 쇼크에 달러 지수도 0.4% 급락
- CNBC: 월가 채용 모습 바뀐다… AI 개발자보다 AI 조율 수요 증가

[에너지]
- WSJ: 중동 원유 수출 회복에 유가 하락세
- WSJ: 중동·러시아 공급난에 디젤가격 폭등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AI 에이전트' 출현에 미 유통업계 엇갈린 반응
- Bloomberg: 전기차 테슬라, 3분기 실적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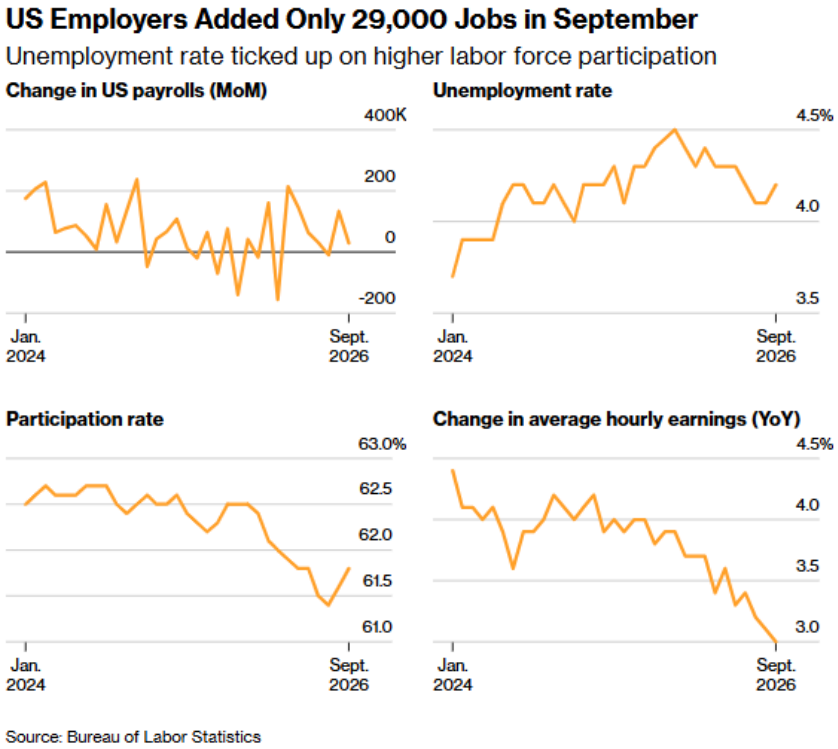
[KMI 공급망 브리핑]

[오늘의 금융 지표]
- 미 증시 지수,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

[미국 경제]

Bloomberg: US Firms Add Just 29,000 Jobs, Unemployment Rate Ticks Up
미 9월 고용 2.9만 명에 그쳐… 고용시장 둔화

- 미국 기업들이 원가 상승 속에서 신규 채용에 신중하면서 9월 고용 증가세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
- 연방 노동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9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2만 9,000명 증가에 그쳐 전망치를 밑돌았으며, 이전 2개월 수치도 하향 조정됐다.
- 실업률은 4.2%로 소폭 올랐다.
- 소비와 기업 투자가 고용을 뒷받침하고 있으나, 비용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신중한 상황이다. 다만 대규모 해고 조짐은 없어 고용시장 자체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기사

WSJ: Another Fed Official Suggests Next Rate Increase Can Wait’
연준 부의장, "10월 금리 인상 서두를 필요 없어"

- Philip Jefferson 연준 부의장이 “추가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히며 금리 인상 신중론을 표명했다.
- 이는 금리 인상의 조급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연준 내 주요 인사들의 금리 동결 시그널이 잇따르고 있다.
- 이로 인해 시카고상품거래소(CME Group) 데이터 기준 10월 금리 인상 전망은 당초 3분의 2 수준에서 어제 목요일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US Bond Traders Pull Back on Fed Hike Bets After Weak Jobs Data
미 채권 트레이더들,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 낮춰

- 미국 고용 시장의 약세 조짐이 확인되면서 채권 트레이더들이 이번 달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 9월 비농업 고용 증가 폭이 예상치를 밑돌고 실업률이 상승했다는 발표 직후 국채 가격은 상승(금리 하락)했으며, 통화정책 변화에 민감한 2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하락세를 보였다. 4.823%로 떨어졌다.
- 금리 스왑 시장에 반영된 연준의 10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지표 발표 전 30% 수준에서 오늘 금요일 오전 약 20%로 낮아졌다.

기사

CNBC: 10-year Treasury yield dives after much weaker-than-expected jobs report
미 9월 고용 쇼크에 국채 금리 일제히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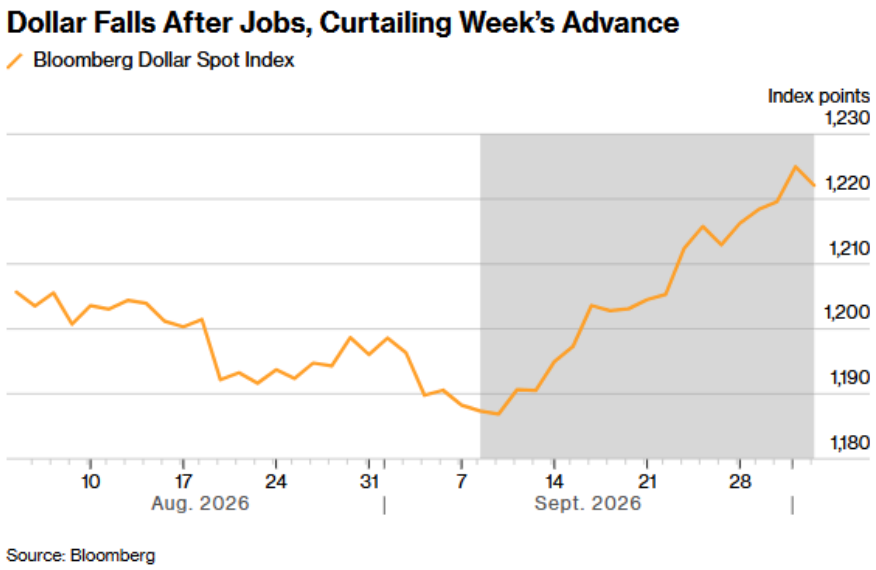
-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9월 고용 보고서 연준의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일제히 하락했다. 2년물, 10년물, 30년물 금리 모두 떨어졌다.
- 이번 주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벤치마크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약 6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한 5.18%를 기록했다.

- 30년물 국채 금리 역시 3 베이시스 포인트 떨어진 5.57%를 기록했으며, 통화정책에 가장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도 하락세를 나타냈다.

기사

Bloomberg: Dollar Falls as Traders Pare Fed-Hike Bets After Soft Jobs Data
고용 쇼크에 달러 지수도 0.4% 급락

- 미국 9월 신규 고용이 2만 9,000명에 그치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달러도 약세를 보였다. .
- 블룸버그 달러 현물 지수(Bloomberg Dollar Spot Index)는 발표 직후 최대 0.4% 급락했다. 당초 달러화는 중동 정세와 프랑스 재정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로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고용 지표 여파로 상승 폭이 줄었다.
- 한편 Wells Fargo는 이번 고용 약세가 경기 후퇴 수준은 아니며, 관심이 다시 유럽의 리스크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

CNBC: How AI is redefining Wall Street jobs — and boosting demand for this new ‘hottest skill’ by 1,721%
월가 채용 모습 바뀐다… AI 개발자보다 AI 조율 수요 증가

- 월가 금융권이 AI 기술을 도입하면서 채용 시장이 크게 바뀌고 있다. 채용 분석 업체 드롭(Draup)에 따르면, 여러 AI 프로그램을 조율하는 'AI 조율(Agent Orchestration)' 기술을 가진 인재 수요가 올해 17배 폭증했다.
- 금융사들은 단순 AI 개발자보다 트레이딩, 준법 감시, 백오피스 현장에 AI를 직접 적용할 '현장 배치 엔지니어'도 적극 채용하고 있다.
- 생성형 AI 관련 직무는 금융 IT 내에서도 몸값이 높은 편이며, 생성형 AI 매니저의 중간 연봉은 약 19만 달러 수준이다.

기사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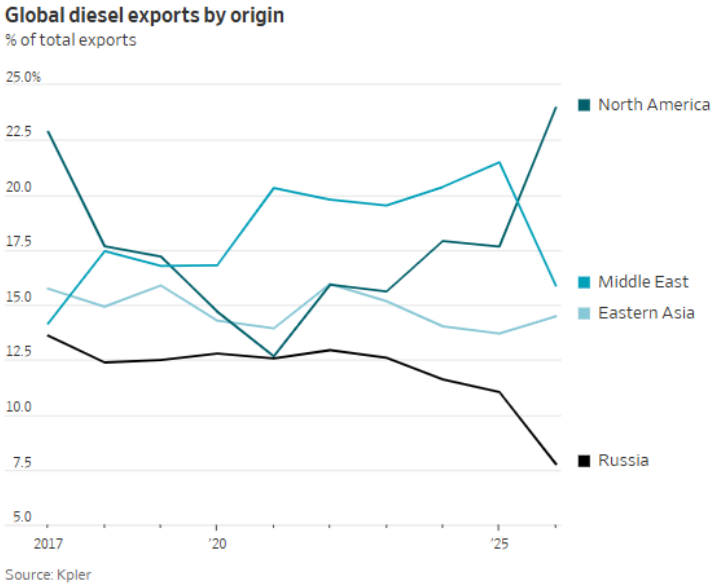
WSJ: Oil Prices Fall as Middle East Crude Exports Recover But Shipping Risks Remain
중동 원유 수출 회복에 유가 하락세

- 국제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12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2.5% 떨어지며 배럴당 99.79달러로 100달러 선 밑으로 내려앉았다.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역시 3.3% 하락하며 배럴당 87.85달러로 하락했다.
- 한편 미 국방부가 제3 항모타격단과 해병대 원정대를 중동에 추가 배치 중인 가운데, 어제 목요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한 척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피격됐다.
- 영국 해군 해사무역기구(UKMTO)에 따르면 이는 9월 28일 이후 다섯 번째 피격 사건으로, 해당 수역의 운항 위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기사

WSJ: Why Have Diesel Prices Soared, and What Can Be Done to Bring Them Down?
중동·러시아 공급난에 디젤가격 폭등

- 전 세계 산업 핵심 연료인 디젤 가격이 중동 전쟁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소 타격으로 급등하고 있다. 미국 디젤 가격은 갤런당 6.39달러로 전쟁 이래 70%가 상승했다.
- 글로벌 디젤 수출의 19%를 차지하던 중동 출하량이 평시의 4분의 1로 급감하고, 러시아 수출도 20% 수준으로 크게 줄었기 때문.
- 미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 디젤 수출 금지를 검토 중이나, 글로벌 공급난 심화와 휘발유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AI Agents Aim to Change Shopping. Some Retailers Are Locking the Doors.
'AI 에이전트' 출현에 미 유통업계 엇갈린 반응

- 소비자 대신 물건을 찾아 결제까지 해주는 'AI 쇼핑 에이전트' 등장에 유통가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 홈쇼핑 채널 QVC는 AI 접속을 전면 허용하며 환영한 반면, 패션 브랜드 Kate Spade와 백화점 Kohl's는 탐색만 하는 수준이고 AI 에이전트의 결제는 막았다.
-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은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빅테크 기업 메타 ' 등 AI 에이전트 접근을 아예 차단했다.
- 유통사들이 차단에 나선 건 고객 데이터 유출, 브랜드 이미지 실추 등의 우려 때문이다.

기사

Bloomberg: Tesla’s EV Sales Top Estimates With Auto Business Rebounding
전기차 테슬라, 3분기 실적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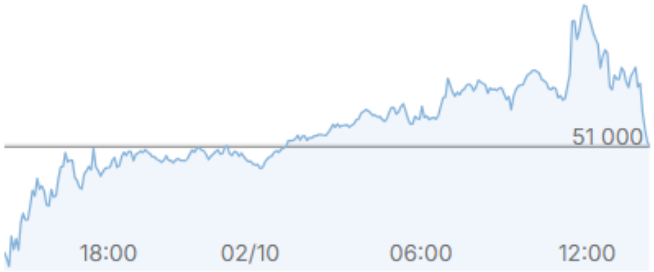
-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3분기 글로벌 인도량이 48만 6천5백32대를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다.
- 중국 시장 내 경쟁 심화와 미국 수요 둔화, 주가 약세로 압박받던 테슬라에게 이번 실적은 반등의 발판이 되고 있다.
- 연방 보조금 종료 전 구매가 많았던 전년 동기(49만 7,099대)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시장 예상을 뛰어넘으며 안정세를 보였다.

기사

[KMI 공급망 브리핑]

-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폭격 가능성 언급 속에 미군은 1만 명 규모 병력과 항공모함 3척을 중동에 추가 파견했다.
- 중국의 10월 연료 수출 중단으로 경유 난이 심화된 가운데, 미국은 유럽에 비축유 방출을 요구하며 수출 금지를 경고했다. 한편, 수요일 호르무즈 해협 통과 상선이 1척에 불과했으나 걸프 지역 원유 수출은 회복세를 보였다.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 미 국채, 주요 환율]



US 30	50,996.40	+69.1	+0.14%
US 500	7,711.00	+44.3	+0.58%
Dow Jones	51,209.91	+283.35	+0.56%
S&P 500	7,711.00	+44.55	+0.58%
Nasdaq	27,148.39	+276.79	+1.03%
S&P 500 VIX	15.73	-0.66	-4.03%
Dollar Index	101.64	-0.243	-0.24%

U.S. Treasurys

	COUPON (%)	PRICE CHG	YIELD (%)	YIELD CHG
30-Year Bond	5.125	23/32	5.610	-0.011
10-Year Note	4.625	-1/32	5.253	0.011
7-Year Note	5	-1/32	5.143	0.010
5-Year Note	5	-1/32	5.033	0.019
3-Year Note	4.375	0/32	4.935	0.018
2-Year Note	4.75	0/32	4.814	0.012
1-Year Bill	0	0/32	4.429	-0.013
6-Month Bill	0	0/32	4.280	-0.007
3-Month Bill	0	0/32	4.080	-0.017
1-Month Bill	0	2/32	3.936	0.063

미국 USD	유럽 EUR	일본 JPY	중국 CNY	유로/달러	달러인덱스
1,347.00	1,517.13	854.13	200.88	1.1233	101.83
-12.50 (0.92%)	-11.42 (0.75%)	-6.01 (0.70%)	-1.59 (0.79%)	-0.0097 (0.86%)	-0.27 (0.26%)
10. 3. 00:20 ● 실시간	10. 3. 00:20 ● 실시간	10. 3. 00:20 ● 실시간	10. 3. 00:20 ● 실시간	10. 1.	10. 2. 11:13 ● 10분 지연

환전고시환율 | 국제시장환율

미국 USD

1
1 달러

대한민국 KRW

1,347
1,347 원

KOCHAM | 445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